사순 제 2주일 (나해)


시편 116 (115)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1.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2.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4.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뜰에서 예루살렘 아네 한가운데에서